

文, 20~40대 압도적 지지...安, 50대 이상·TK서 상승세

여론조사로 본 문재인·안철수 지지층

호남 지지도 양자 박빙 대결

보수층 ‘전략적 선택’ 움직임

文·安, 대구·경북서 흥준표 제쳐

대선을 한 달여 정도 앞둔 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른 가운데 호남과 보수층의 선택이 주목을 끌고 있다.

대부분 여론조사 결과, 다자구도에서는 문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자 또는 3자 구도에서는 문, 안 후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중 호남에서는 그동안 대세론 영향으로 문 후보가 선두를 지켜왔지만 최근 기류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 50대 이상에서 안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며 전체적인 지지율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보수층과 대구·경북에서 안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며 보수정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선호 뚜렷=6일 매일경제·MBN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일 전국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호남지역에서 안 후보는 46.7%의 지지율로 34.1%에 그친 문 후보에 앞섰다.

안 후보가 호남에서 문 후보를 이긴 여론조사 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영령들을 추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일 발표한 JTBC 여론조사 결과는 문 후보가 안 후보를 제쳤고 같은 날 발표한 조원씨앤이 여론조사에서도 문 후보는 안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이날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20대 이하부터 40대까지는 문 후보가 앞섰고, 50대 이상은 안 후보가 앞서는 등 세대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90%) 유선(10%) 혼용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0.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보수층·TK 표심은=지난 4일 국민의당 경선 종료로 5자 대선 구도가 확정된 이후에도 보수 유권자 및 TK지역에서 안 후보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일경제·MBN이 6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안 후보는 36.4%의 지지율로 32.2%의 문 후보를 약간 앞섰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문 후보가 45.6%의 지지율로 29.1%에 그친 안 후보를 크게 따돌렸다. 두 지역 모두 자유한국당 흥준표 후보는 3위를 기록했다.

중앙일보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연주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입당식 및 완전국민경선 보고대회에 참석해 안철수 후보(왼쪽 두번째)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날 보도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TK지역 지지율은 안 후보(39.3%), 문 후보(23.2%), 홍 후보(15.2%) 순이었다.

또 JTBC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4일 유권자 1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안 후보(38.2%)는 TK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문 후보와 홍 후보는 각각 26.7%와 16.1%를 차지했다.

이는 보수성향이 강한 TK지역에서 보수 대표주자를 지입하는 홍 후보 대신 안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에 대한 홍 후보의 경쟁력이 떨어지자 ‘문재인 대항마’로 안 후보를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각 후보의 강세지역·세대와 취약지역·세대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제 각 후보들은 강한 부분을 더욱 확장하면서 취약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용광로처럼 통합 이룰 것”

본선 첫 행보 호남 방문...광양제철소, 5·18묘지, 목포 신항 찾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광주와 전남에서 ‘통합과 치유’의 대선 첫 행보를 시작했다.

문 후보는 6일 전남 광양의 광양제철소와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강조한 데 이어 세월호가 인양된 목포 신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하는 등 광주와 전남을 오가는 광복 행보를 보였다.

문 후보는 지난 3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틀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지만, 이는 일반적인 ‘코스’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날 일정이 첫 행보인 셈이다.

문 후보의 호남 방문은 지난날 27일 당대 경선 이후 꼭 열릴만하므로, 지지율 상승세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오전 광양제철 방문한 문 후보는 파란색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용광로 앞에서 “30년 된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용광로다”며 “광양제철소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다”고 격려했다. 용광로 방문은 모든 적폐와 지역·세대·이념 갈등을 녹여 통합으로 새 출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또 문 후보는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정신 헌법 계승’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방문목에 ‘광주정신을 헌법에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었다. 이어 반잠수정에 거치돼 육상 이승을 앞둔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했다. 적폐에 의해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하고 국민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라는 게 문 후보 측의 설명이다.

문 후보는 목포대에서 ‘청년의 미래, 행복한 지역 인재 육성’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대책도 밝혔다.

한편 문 후보의 아내인 김정숙 씨가 7일 호남 방문을 이어가며 남편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선다.

김씨는 이날 오전 해남 대흥사를 찾아 호국대장사 서산대제 범오식에 참석하고, 서산대사 영정을 모신 표충사에서 참배할 예정이라고 문 후보 측은 6일 밝혔다. 대흥사는 문 후보가 청년 시절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곳으로 문 후보 내외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오후에는 영암으로 이동,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열리는 왕인문화축제에 참여해 지역민들과 만난다. 김씨는 유적지 일대에서 열리는 수능대박 깃발 만들기, 난장놀이 체험을 하고 부친계를 함께 부치고 나눠 먹는 영암 화전놀이 ‘기찬골 잔치’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호남을 찾으며 남편의 선거를 도왔다. 문 후보 측은 “7개월간 이어진 김정숙 사모의 호남 사랑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 “연정에 가까운 인재 등용”

관훈클럽 토론회...유승민 등과 대선전 연대 불가론 강력 피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수권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키워드로 ‘대통령 내각’을 제시했다.

40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에 사실상 연정(聯政)에 가까운 인재 등용 카드로 돌파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대통령 내각을 만들 것”이라며 “새도 캐비닛(예비내각)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캠프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경우 나눠 먹기가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우리 편 저쪽 편을 구분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상대편 캠프에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도 문제를 푸는데 최적이면 등용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특히 문 후보 측 캠프에서 영입할 인재가 있다고 밝히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답사는 인물이) 있지만 밝히기 곤란하다 그분께 폐가 된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는 이어 집권시 ‘협치’를 떠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락연설 직후 가진 방송사 릴레이 인터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절대 과반을 넘는 의석을 갖고 있었다”며 “그런데 제대로 국정운영이 됐나, 협치가 됐다. 오히려

더 혼란 상황에 빠졌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이런 발언은 최근 지지율에서 문 후보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대선 승리를 확실히 장담하기 어렵다는 상황 인식 아래, 민주당 등 타 정당 후보 지지자들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문 후보 측에서 연일 국민의당 의석수를 문제 삼아 수권능력에 대한 공세를 거듭하는 데 대한 대응의 성격도 있다.

한편, 안 후보는 대선 전 연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하게 불가론을 이어가며 문 후보 측의 ‘적폐연대’ 프레임에 방어전선을 펼쳤다.

안 후보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박근혜 정부를 출범시키는 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번에 책임져야 한다”면서 “선거 이후에 서로 협치의 상대로는 좋은 파트너일 수 있지만 지금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무능력한 지도자가 유산이 있다는 이유로 높은 자리 차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관광·휴양·온천·체험·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북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3월 31일~6월 4일]

〈북큐슈 정통〉	벳부·유후인·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579,000원~
★한정특가★	3/31, 4/14 북큐슈 여행	1인	499,000원~
〈아마구치 정통〉	아마구치·하기·시모노세키·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가라초·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799,000원~
〈골프상품〉	기타큐슈 골프	1인	999,000원~

※ 골프상품 인센,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 4/28, 4/30, 5/3, 5/5은 골든위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박 편도 북큐슈 “봄” 상품 [매주 일·화·수요일 출발/4월 2일~6월 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 + 선박 (선착순 한정 30명)	1인	39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 + 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 + 항공	1인	399,000원~
〈올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 → 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토요일 출발/4월 19일~6월 24일]

1. 항공 + 에어텔	1인	749,000원~
2. 다낭·호이안·후에	1인	799,000원~
3. 다낭·후에·밭마·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항공·선박 왕복 제주도 “봄” 상품 [매일 출발/3월 24일~7월 20일]

〈광주〉	제주도 웰빙여행	1인	299,000원~
〈목포〉	선박왕복 제주도 여행	1인	189,000원~

※ 제주상품은 석식 2회,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울포함〉 대마도 1박2일 [4월 23일] 279,000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이쯤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보험 가입(해외여행:1만원/국내여행: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금지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시/가이드봉사료,선박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